

북한의 집단정체성과 한반도 미래세대 사회통합정체성*

이현주**

| 목 차 |

- | | |
|-----------------------------|---------------------|
| I. 문제의 제기 | 분석 |
| II. 한반도 미래세대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 전제 | IV. 한반도 사회통합정체성의 제시 |
| III. 북한 집단정체성에 대한 조사와 | V. 결론 및 시사점 |

| 논문요약 |

한반도는 통일 이후 미래세대의 사회통합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 사회는 분단 이후 형성된 편견으로 서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집단정체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반도 미래의 가치통합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집단정체성을 푸코가 집단정체성 형성 요인으로 제시한 ‘관련지식 형성’, ‘권력체계’, ‘타자와 자신을 구분 짓는 관계방식’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북한의 집단정체성을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이라 정의하였다.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의 특성은 자발적 성격의 ‘체제(충성성, 신뢰성)’와 규범적 성격의 ‘체제(우월성, 우위성)’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284명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은 북한 주민들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제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충성성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장점을 최대한 수용하고 포용하는 사회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한

* 본 연구는 2015년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에서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의 조사 연구”로 발표된 바 있음.

**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전문위원.

의 장점인 자유성, 민주성과 북한의 장점인 신뢰성, 충성성을 융합한 한반도 사회통합정체성 모형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북한, 집단정체성, 한반도, 미래세대, 사회통합정체성

I. 문제의 제기

사회통합은 파슨즈의 지적처럼, 사회의 공통적 가치가 사회체계의 구조적 요소 안에 제도화되고, 공통의 가치 모범과 행동 지향이 내면화될 때 성취된다. 이러한 공통의 가치는 뒤르껴이 말하는 집합의식(collective conscience)을 구성한다. 가치적, 규범적 표준들이 효과적으로 내면화되어 사회의 성원들은 집합의식을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하며, 유사하게 행동한다(프란케나 1987, 120). 한반도 미래세대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제도의 통일보다는 정서적인 가치적인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 체제통합이 경제관계나 권력구조 및 제도들의 통합이라면 사회통합은 물리적 체제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사이의 심리적 일체감을 의미한다. 사회통합은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 이질화를 전제로 한 상호 간의 유대감과 의존도를 강화해 나아가는 통합 과정이다. 국가 내부의 다양한 구성원 사이에서 조화로운 공존과 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민족공동체의 형성을 의미하는 데 구성원들의 일체감이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확보되어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최순중 2014, 288). 결국 동질한 정체성 형성을 목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통일 이후 동질한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북한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정체성의 정의와 그 특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집단 정체성은 의미 공유에서 비롯되는 성원들 간의 통일성을 강조하며 개별성보다 공통점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므로 각 사회집단이나 개인은 전체 집단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서로 동일시하며, 그 가치관을 내면화

하게 된다. 가치관이 개인의 삶의 목표가 되면 사람들은 이 가치관에 알맞은 삶의 스타일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자기에게 부여되고 기여되는 역할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개인적 또는 집단적 정체성 모두는 한 사회가 지닌 가치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며, 특정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 사회에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특성을 내면화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조정아 외 2010, 80).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유일사상체계이다. 유일사상체계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정신적인 구심점이 되고 있다(김병로 2000).¹⁾ 그렇다면 이러한 유일사상체계가 북한 주민들의 의식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으며 그 특성은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유일사상체계의 구현 결과 북한 주민의 의식에 어떠한 특성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민성길·전우택 1995, 39-73; 전우택 1997a, 1-3; 전우택 1997b, 109-167; 민성길 1998, 69-106; 전우택 2000, 179-196; 조정아 외 통일연구원 2010; 이현주 2011a; 이현주 2011b, 291-325; 이현주 2012, 135-171; 이현주 2013, 147-177; 이현주 2015a, 33-52; 이현주 2015b, 77-94). 북한의 집단정체성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분석은 한반도 미래세대 사회통합정체성 모색을 위한 출발점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이현주 2015b).

사회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중 심리적 갈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심리적 갈등은 사고, 가치, 생활습관에서의 차이로 인한 것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편견으로 인한 것이다. 통일한국에서는 남북한 주민들의 상대방에 대한 편견으로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갈등 표출이 예상된다. 통일은 다가오고 있으나 한국 사회는 여전히 반공이데올로기로 북한을 조망하고 있다. 편견이란 한쪽으로 치우쳐서 바라본다는 의미이다. 반공이데올로기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에게 있어서 북한에 대한 편견은

1) 북한의 주체사상은 단순한 사상이나 이념을 넘어서 종교적 차원으로 발전하였으며, 북한 사회는 주체사상을 국교화한 종교 사회로 변화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숭배행위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종교의 성소에 해당하는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실을 45만 개나 갖추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통일 이후 한반도의 사회통합을 원한다면 북한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집단정체성에 대한 객관적 연구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 70년간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집단정체성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강원택 2007, 15). 한반도는 이질화되어 있는 상대방의 긍정적인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장점을 수용하며 포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시대의 사명은 통일 이후 한반도의 사회통합을 통해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통일 사례로 꼽는 독일의 통일 경험은 사회통합의 어려움을 잘 드러내고 있다. 제도의 통합에는 성공하였으나 진정한 가치통합에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평가가 이를 증명한다. 진성우(1997)는 동서독 사회통합 과정을 분석하여 사회주의체제가 사회주의적 근대화 전략을 통해 사회주의적 인간성을 형성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동독인들이 서독의 가치에 편입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손기웅(2007)은 통일 논의의 사회통합 요소를 강조하면서 동서독의 사회문화 교류의 시사점을 남북한 통일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윤철기(2014, 9-43)는 독일 통일 25년을 고찰하면서 내적통합의 미해결 과제를 지적하였다. 최순중(2014, 288)은 독일 통일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통합의 의미를 정치경제 제도가 아닌 사회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독일 통일 이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호 불신과 갈등의 후유증은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통일 이후의 갈등에 대해 고민을 하게 하였고 통일 논의에 있어서도 정치·제도적인 통일 논의보다 사회·문화 통합을 통한 내면적인 통일 준비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한반도의 통일과 사회통합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통합의 과제가 장시간에 걸친 엄청난 노력과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통일국가의 정체감 형성을 위해서는 남북 주민들이 서로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독일 통일 이후 동서 독일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특히 상이한 체제에서 성장하여 공동의 기억이 부재한 청소년들은 상호 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새로운 유형의 인간을 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황했다. 동독 청소년들은

서독 청소년들을 활달하며 약삭빠른 사람들로 인식했고, 서독 청소년들은 동독 청소년들을 둔하고 순진하다고 인식했다. 그 결과 통일 이후 서로에 대한 새로운 적대감이 발생하였다. 통일 베트남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은 민주주의와 시장원리에 저항적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 반면 남한 주민들은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사회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날 수 있다. 남북 주민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심리적 갈등은 사고, 가치, 생활습관의 차이로 발생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편견으로 인한 것이다(전태국 2000, 120). 남한과 북한은 분단의 이데올로기가 형성한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남한에서는 북한의 집단정체성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 통일 이후 한반도의 조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서는 남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만으로는 부족하다. 통합된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북한 주민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한반도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있는 미래세대 사회통합 정체성이 제시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남한 주민의 협조가 융합될 때 남북통합의 새로운 내적 성장 동력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단 70년은 우리 민족 5000년 역사에서 짧은 기간이라 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이 겪어왔던 역사를 생각하면 한반도의 통일은 쉽지 않은 것일지라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 이전에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통일정체성이 먼저 모색되어야 한다. 한반도 통일정체성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 민족은 과거 시련을 극복하고 외세에 대항하며 자주와 독립을 지켜왔던 민족이다.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민족성은 현재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주민들의 의식 속에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는 정체성이 한반도 통일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한반도 미래세대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 전제

1. 한반도 미래세대와 사회통합

한국 사회는 민주화와 남북관계의 변화, 엘리트 형성 과정에서 이념문제가 중첩되어 사회통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보수로 대표되는 산업화 세력과 진보로 대표되는 민주화 세력 간의 격돌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러한 이념의 투쟁은 ‘지키려는 자’와 ‘바꾸려는 자’와의 투쟁이고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 자원 배분만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와 권위, 가치와 정체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사회통합으로 가는 길이 요원하다.

분단된 국가의 통일문제에 있어서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는 서로 다른 사회체제 구성원들의 의식이나 가치관을 포함한 사회체제 전반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록우드(Lockwood 1964)는 ‘통합’을 사회통합과 체제통합으로 구별하였다. 하버마스(Habermas 1987)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였다. 체제통합을 화폐와 권력과 같은 ‘탈 언어화된 매개’로 정의하고 사회통합을 ‘의사소통으로 성취된 합의’로 정의하였다. 또한 화폐와 권력의 체계 규제적 구조가 상호 이해와 합의의 사회통합적 구조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을 ‘내적 식민화’라고 개념화하였다. 사회통합을 무시하고 체제통합만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 사회를 남한의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 준다(전태국 2000, 118). 통일의 핵심은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체제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문제로 귀착된다. 정치적·법률적 통합이 비교적 단기적인 통합이라면 사회통합은 장기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조한혜정 외(2000)는 통일 논의에 있어서 ‘체제통합’에 치중하여 ‘사회통합’적 차원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통일 연구를 비판하였으며, 남북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언어 영역을 통한 문화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또한,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한반도 통일 논의에서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김국현(2000, 141-183)은 통합의 우선적 과제로 심리적 통합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반편견 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편견

과 차별을 제거하여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배규한(2001)은 체제론적 시각의 통일 논의를 탈피해 관계론적 시각의 통합 개념을 강조하면서 남북한 이질화의 정도를 언급하며 남북한 사회통합의 기반이 취약함을 제기하였다. 조한범(2004, 1-87)은 남북한 사회화 문체에 있어 이질화 요인으로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가 서로 다른 근대화 과정을 거쳐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순중(2014)은 독일 통일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통합의 의미를 정치·경제 제도가 아닌 사회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수직성, 긴급방어, 체제와 생활세계 간의 불일치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남한 사회의 가치 기초에 대한 북한 주민의 동의와 내면화는 ‘사회적 수직성’의 지배 성격을 갖는다. 북한 주민들은 주변화되고, ‘근대로의 도약’을 위해 그들에게 남한의 중심적 가치에 무조건 적응할 것을 요구하는 자발성에 근거한 상호 주체성을 무시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편에서 ‘저항’이 구조될 수 있다. 둘째, 남북한 주민들 간에는 오랜 격리로 인한 이방인적 낯섦과 체제의 각인에 의한 가치관의 상이가 통합의 출발 상황을 규정한다. 후견적인 부양국가의 전체주의적 독재에 의해 각인된 북한 주민들은 통일 과정에서 일어나는 급속하고 근본적인 제도 변화를 감당할 수 없다. 급작스럽고 급격한 제도 변화는 북한 주민들의 관습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 관습이 사람들에게 의식되고 소중한 것이 됨으로써, 시대의 물결에 반하여 오히려 공고화’될 수 있다. 그리하여 북한 주민들은 통일 후의 급격한 제도 변화 상황에서 일종의 자기방어와 긴급방어의 행동으로써 과거의 북한체제에 다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셋째, 사회통합은 북한지역에 ‘체제’와 ‘생활세계’ 간의 불일치라는 새로운 문제점을 발생시킬 것이다. 생활세계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따라서 오직 느리게만 변화된다. 종전의 공산주의 체제에 의해 각인된 ‘생활세계’가 통일 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체제’와 공존하게 된다. 말하자면 ‘비동시성의 동시성(Karl Mannheim)’이 나타날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비공식적인 사회적·문화적 하부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형성은 단기적으로 달성될 수 없다. 변화된 상황에서 여전히 이전의 태도, 관행, 가치 척도는 사라지지 않

고 끈질기게 계속 작용하는 ‘히스테레시스 효과(Hysteresis-Effekt)’가 나타나 단기적인 동화 과정을 방해할 것이다(진태국 2000, 118-120).

2. 북한 집단정체성과 편견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의 서로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편견은 실제 생활세계에서 남북한 주민 사이에 접촉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과 차별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를 극복하고 심리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편견에 대한 이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편견에 대한 성찰과 편견과 차별에 대해 저항하려는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편견은 사회통합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편견은 6.25 전쟁, 분단 이후 이질화된 체제 경쟁 과정에서 발생한 남북 간의 직간접적 갈등과 그 결과로써 실존적 불신과 적대감, 집단 범주와 타자화에 근거한 사회정체감 형성, 우리-그들이라는 대립적 관계에 기초하여 가정, 학교, 사회, 언론에서 이루어진 사회화, 반민족적 편견적인 통일교육 등에 의해 형성되었다(김국현 2003, 154-155).

국제사회의 냉전논리는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분단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남북한의 정치체제는 자본주의에 근간을 둔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사회주의에 근간을 둔 공산주의체제가 각각 수립되었다. 오늘날의 탈냉전 시대에도 여전히 상이한 체제와 이념하에서 70년 간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이질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이질화는 서로를 타자화하고 적대적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체제 유지를 도모해 왔다. 민족정체성의 재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우리’와 ‘그들’에 대한 사회적 경계를 만들어내고 ‘우리’를 특정한 방식으로 고정화시킨 것이다. 체제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 기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남북한체제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과 비호의적 이미지 형성에 주력하였고 자기의 체제를 상대적으로 우위에 인식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충성과 결집을 이끌어내었다. 그 과정에서 각 정권은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이 서로에 대해 편견을 형성케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말한다. 모든 사람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능력, 나이, 외모, 계층, 장애, 문화, 성, 인종 등에 걸쳐 편견을 가지고 있다. 편견은 일상의 의사 결정이나 행동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자아정체감이나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편견은 실제적인 경험 이전에, 또는 충분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한다’는 것은 감정적 요인인 경멸, 혐오, 공포, 회피와 적대적 행동 요인인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폭행하는 것 등을 말한다. 편견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고 경직된 일반화에 근거를 둔 반감이며 느껴지거나 표현된다. 편견은 집단 전체를 향하거나 그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에게 향한다. 그러므로 편견의 대상은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Gordon 1993, 30-32).

편견의 인지적 기원은 범주화, 사회정체성, 자기범주화, 내집단 편애, 외집단 동질성 등에 의해 설명된다(김혜숙 1999, 3-12). 범주화는 사회적 정보처리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나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사람들을 범주화하는 것만으로도 편견과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범주화는 사람들이 타인을 지각할 때 개별화하여 지각하기보다는 그들이 속한 범주에 근거해 한 범주에 속한 사람들을 함께 묶어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한 사회에서 특정 역사와 경험에 의해 그 구성원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범주들도 타인을 지각하는 데 사용된다. 사회정체성이론에서는 사람들은 대상을 ‘우리’와 ‘그들’로 범주화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이 속한 내집단을 타 집단에 비해 높이는 사회적 경쟁을 하게 된다고 본다. 내외집단 범주화만으로도 심리적·사회적 경쟁이 일어나 내집단을 편애하고 외집단을 상대적으로 비하시킨다는 것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을 호의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정체감을 높이며 편견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내집단의 호의적 인상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자기범주화 이론의 입장은 범주화가 집단 간 사람들의 차이와 집단 내 사람들 간의 차이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결정된다고 본다. 사람들이 두 집단 구성원들 간의 차이를 집단 내 구성원들의 차이보다 더 큰 것으로 지각하는 한 이 대상들을 집단 범주에 의거해 지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성, 종족, 지역 등의 범주가 두 집

단 구성원들의 차이를 잘 구분하도록 해주는 한 이러한 특정 자기범주화 및 타인범주화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게 된다는 것이다. 일단 사회적 수준으로 자기범주화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집단 간 차이를 더욱 뚜렷하게 지각하며 집단 내 성원들의 유사성을 더욱 크게 지각한다(김국현 2003, 147-148).

편견의 형성 원인은 사회적 학습, 인지적 기원, 감정적 기원이다. 편견은 사회적 학습에 의해 형성된다. 아동은 부모의 편견을 여러 가지 이유로 획득한다. 유아들은 2세경부터 타인에 대한 탐색을 통해 인종, 민족, 성, 장애, 사회적 계층에 대한 고정관념을 접하게 된다. 아동들은 3세 전후에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타인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4-5세의 아동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규범에 의해 정의된 적절한 성역할을 수행하는데 아동들 상호 간의 행위에 의해서 강화된다. 성, 인종, 민족적 차이에 대한 인식의 발달은 2세경부터 시작되어 5-6세경이 되면 분명해지며, 대부분의 아동들의 경우 10-12세경에 사회적 학습에 의해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관념을 갖게 된다(Walter 1999, 39).

편견의 발달은 아동에게 사고나 태도를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스스로 편견을 생활의 방편으로 발달시키도록 하는 것이다(Melinda 2002, 12). 남한 청소년들은 북한 청소년이 남한 청소년에 비해 집단주의적이고, 엄격하고, 타율적이고, 몰개성적이고, 폐쇄적이라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성실하고 근면하다는 긍정적인 고정관념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학교 교육을 통해 배운 공산주의적 인간형의 고정관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길은배 외 2001, 60-61). 북한에도 남한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 북한의 공식적 사회화는 남한 사회에 대한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남한 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식민지적 자본주의 체제,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 인권 부재, 사회 전체에 만연된 부조리한 생활문화, 권력 상층부의 부정부패, 황금만능주의, 사치와 향락, 외래문화의 범람으로 인한 민족 고유성의 상실 등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박재환 1999, 139-140).

정체성은 성이나 인종, 계급, 연령, 직업, 민족, 국가 등 수많은 범주에 따라서 존재하게 된다. 이때 사회적 정체성은 집단적 정체성으로 성숙된

다고 할 수 있다(Cerulo 1997, 385-409). 개인정체성은 ‘개인들이 어떤 다른 사람, 사회적 사실, 사물 같은 대상들에 대하여 형성하는 의미’들을 의미하며, 가변성이 크고 지속성이 짧은 특징을 가진다. 이에 비해 집단정체성은 ‘한 집단의 성원들 간의 상호적 의식과 그들의 자기 집단에 대한 소속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집단정체성은 개인적 정체성에 비해 가변성과 상황적 측면이 작은 대신 지속성과 일관성이 크다. 그런 이유로 집합체의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Smith 1992, 1-23). 초기 사회학 이론에서 ‘집단정체성’의 연구는 주된 관심사였다. 개인적 수준의 정체성은 자아의 형성이다. 그러나 개인적 정체성의 확인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발달되고 진행되기 때문에 사회적 정체성으로 발견된다(Placencia 2010, 643-660). 에릭 발바흐는 “정체성이란 원래부터 타고나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체성은 ‘나(자아)’와 ‘타자’의 구별을 통해 형성되며, ‘도덕적이고 비위협적인 나’에 반대되는 ‘비도덕적이고 위협적인 타자’를 통해서 설명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인 자신의 ‘선(善)’한 정체성을 악한 타자인 미국을 통해 형성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북한과 미국 간 갈등을 정치 갈등이 아닌 선과 악의 도덕적 대결로 대체해 왔다고 분석하였다. 외세인 미국은 북한에게는 자아와 타자의 경계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며, 부도덕한 타자인 미국은 북한을 침략할 권리뿐 아니라 도덕성과 인간성에서도 부적격자한 국가로 타자화된다고 보았다(『아세아경제』 2014/10/26).

이승목(2006, 227-237)은 북한의 집단주의 형성과 변천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그는 집단주의 형성 배경으로 일제 시기 사회 변화와, 국가건설 과정에서 김일성의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 과정 및 집단주의 사회구성, 한국전쟁을 통한 집단주의적 발전전략 수립을 연구하였다. 이현주(2011)는 북한 집단주의 심리적 특성인 체제와 분리시 나타나는 불안이 체제 유지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김성경(2015, 5-6)은 세대적 ‘마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북한의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정체성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김하영(2006, 23-51)은 북한체제의 초기 집단정체성 형성에 관해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공식문헌 자료를 참고하여 해방 후 북한체제 형성기에 나타난 집단정체성 형성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해방 후 북한에서의 집단정체성 형성의 특징은 첫째,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과 빨치산 세력이 체제 형성과 집단정체성 형성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집단정체성은 과거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국제정치의 현실에 따른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넷째, 영토성의 측면에서는 민족의 본원적 공통성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공동체의 복원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다섯째, 과거와 다른 새로운 이념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국가의 구성원 자격에 있어서는 과거의 정치사회 질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계급성에 따른 새로운 시민성의 기준이 적용되었다. 여섯째, 체제 형성 초기 급진적 개혁조치를 통해서 정치사회 세력의 구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집단정체성이 현실에서 제도화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조정아 외(2010)는 정치학, 미시사,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여성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이론을 동원하여 북한 사회의 변화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정체성 변화를 탐구하였다.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생존전략을 통해 생존의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국가관과 집단주의적 의식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기본적인 의식과 가치관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2000년대 이후의 자생적 시장화가 진행되고 중국을 비롯한 외부세계와의 인적, 문화적 접촉이 증가하면서 국가·당·지도자, 시장경제, 개혁개방, 남한에 대한 생각 등의 측면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집단정체성 유지와 동시에 개인정체성이 확대되어 간다고 보았다.

북한은 김일성 유일사상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정체성을 형성한 결과 대내외적인 시련을 극복하고 3대 세습을 이루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일사상체계는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써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정신적인 중심점이 되고 있다. ‘유일사상체계’는 당 창건 초기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김일성의 정적들이 모두 숙청된 후 ‘중앙당 집중지도사업’(1958-1960년 말)이 전개되면서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당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유일사상체계’의 본질은 김일성 일가의 독재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데 있다. 북한에 도입된 마르크스-레닌주의가 김일성주의로 변화하면서 김일성 유일사상체계의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56년 ‘8

월 종파사건'은 최창익과 '연안파' 등 김일성의 정치적 숙적이 모두 사라지고 북한에서 김일성 중심의 항일 무장투쟁만이 유일한 혁명전통으로 강조되는 정치적 사건이다. 서동만(2005)은 '국가사회주의'와 당의 '일원적 지도'체제가 1958년부터 시작되어 1961년에 완성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2013년에 북한은 1974년 4월 14일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전면 개정했다. 명칭은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하 10대 원칙)'으로 바뀌었고, 내용은 서문 및 10조 65항에서 서문 및 10조 60항으로 조정되었다. 10대 원칙은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상위에서 김정일의 유일 독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통치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다(오경섭 2013, 12-14). 유일사상체계는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당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그 후 후계체제를 강화하고 유일 독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통치규범으로 개정되었다.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을 형성한 결과 대내외적인 시련을 극복하고 3대 세습을 이루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집단정체성은 '10대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이라 정의할 수 있다.

Ⅲ. 북한 집단정체성에 대한 조사와 분석

1. 북한 집단정체성의 조사방법론

(1) 분석틀

푸코는 '특정지식 형성', '권력체계',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관계방식'에 의해 집단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보았다(고든 1991, 160).²⁾ 집단정체성은

2) 푸코는 진리란 '하나의 진술이 만들어지고 분배되고 통용되고 작용하도록 만드는 질서화된 절차의 체계'라 보았다. 권력과 지식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관계는 불가능할 것이다. 권력을 정당화하는 지식은 물론이고 저항하는 지식에도 똑같이

의미 공유에서 비롯되는 성원들 간의 통일성을 강조하며 개별성보다 공통점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므로 각 사회집단이나 개인은 전체 집단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서로 동일시하며, 그 가치관을 내면화하게 된다(조정아 외 2010, 80). 김일성 유일사상체계의 ‘특정지식’은 ‘10대 원칙’이다. ‘10대 원칙’은 ‘북한체제와 그 지도자에 대한 끝없는 충성과 신뢰’로 요약된다. 북한에서 ‘10대 원칙’ 위반은 연좌제 처벌을 받게 된다(현성일 1997, 1-47). 이러한 ‘10대 원칙’은 김일성의 후계자인 김정일의 권력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김일성 독재체제가 확립되면서 ‘10대 원칙’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규율하는 최고의 규범이 되었다.

북한은 당이 법과 인민 위에 있고, 수령이 당위에 군림하는 체제이다. ‘10대 원칙’의 내용은 지도자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충성과 복종이다. 사회주의체제에서 김일성 독재체제로 변형되면서 충성의 대상이 사회주의 전체 인민에서 이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변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지도자는 ‘공산사회를 완성하고 인민을 해방시킬 수 있는 절대적 능력자’라는 신뢰감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성립 과정에서 다른 사회주의와 유사하게 지주의 재산을 압수하여 가난한 소농에게 분배하였다. 이때 대다수의 소농민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이며 사회주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북한의 지도자는 정치적인 지도자 이상으로 주민들로부터 ‘아버이’로서 섬김을 받고 있다. 사회주의 대가족인 북한에서 개인은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를 위해서 희생될 수 있다(이현주 201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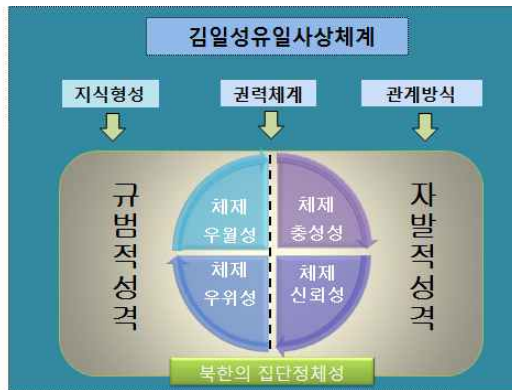
북한에서는 지도자의 명령을 어기는 자, 또는 지도자와 대립하는 자를 ‘타자’라 인식하게 된다. 북한의 집단정체성은 김일성 유일사상체계의 ‘특정지식 형성’, ‘권력체계’,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관계방식’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집단정체성을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이라 정의할 수 있다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은 ‘규범적(또는 강제적) 성격’과 ‘자발적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의 ‘자발적 성격’은 ‘충성성’과 ‘신뢰성’이다. ‘충성성’과 ‘신뢰성’은 북한의 사회주의

적용된다. 그래서 어떤 지식이 진리라 인정받았다면, 그 자체가 가진 정교함이나 객관적 확실성 때문이 아니라 그 지식의 외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특정한 정치적 효과와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든 1991, 160).

체제 성립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규범적 성격’인 ‘체제우위성’, ‘체제우월성’은 ‘10대 원칙’이 형성되고 강력한 전체주의에 의해 강화되었기 때문에 ‘강제적 성격’으로도 볼 수 있다. 경제난 이후 사회주의체제 성립 과정에서 형성된 자발적 성격의 ‘충성성’과 ‘신뢰성’은 약해진 반면 규범적 성격의 ‘체제우월성’, ‘체제우위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현주 2012, 135-171).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 모형은 <그림 1>과 같다(이현주 2015, 33-52).

<그림 1> 북한의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 모형



(2) 조사 도구

조사 도구를 작성하기 위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북한을 이탈한 주민 1,000여 명의 수기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심층 면접자 3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제작하였다. 제작된 질문지를 북한학 전문가 5명과 북한이탈주민 전문 연구가 5명에게 의뢰하여 내용과 용어의 적합성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2명에게 용어를 검수하여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신뢰도는 체제충성 Cronbach의 알파.761, 체제신뢰 Cronbach의 알파.858, 체제우월 Cronbach의 알파.873, 체제우위 Cronbach의 알파.885이다.

(3) 조사대상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어릴 때 세워진 사물을 구분하는 체계적인 원칙은 잘 변하지 않는다(Stolorow & Atwood 1987, 65). 북한 주민들에게 어릴 때 내면화된 집단정체성은 성인이 되거나 북한을 이탈한 이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북한의 집단정체성이 내면화된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집단정체성을 조사할 수 있다. 조사는 2010년 5-7월에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은 남성 31.0%(88명), 여성 67.6%(192명)이며, 기혼 57.4%(163명), 미혼 32.4%(92명)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3.6%(67명), 30대가 20.4%(58명), 40대가 19.0%(54명), 50대가 12.3%(35명), 60대 이상이 23.6%(67명)이었다. 북한에서의 거주지는 도시가 56.3%(160명), 농촌이 32.7%(93명)이며, 출신 시도는 함경북도 49.6%(141명), 양강도 11.3%(32명), 자강도 3.9%(11명), 함경남도 10.2%(29명), 평안북도 3.5%(10명), 평안남도 4.9%(14명), 평양 6%(17명), 황해북도 6%(17명), 황해남도 1.4%(4명), 강원도 2.5%(7명)이다. 조사 대상자의 북한 최종학력은 인민학교 졸업자가 3.9%(11명), 고등중학교 졸업자가 56.3%(160명), 전문대학 졸업자가 14.8%(42명), 4년제 대학 졸업자가 10.9%(31명)이었다.

2. 북한 집단정체성의 특성

(1) 내면화된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

내면화란 개인 스스로가 옳게 되려는 욕구에 의해 타인의 가치나 신념 체계를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내면화'에서 중요한 요소는 새로운 정보를 주는 사람의 신뢰성이다(류경남·최수정 2006, 288). 조사 결과 남한정착기간이 5-10년인 집단이 체제충성성과 체제신뢰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김일성 유일사상체계의 집단정체성은 장기간의 남한 정착기간에도 유지되고 있었다. 북한을 떠난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볼 때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은 북한 주민들에게 내면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 주민들은 그들의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세운 체계적인 원칙

을 북한체제를 이탈한 이후에도 일정 내용을 유지하고 있었다(Stolorow & Atwood 1987, 65).

북한에서의 정치교육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다. 북한은 가정이 사회화의 가장 원초적인 단위라는 점을 인정하고 가족 독보회 실시를 장려함으로써 유아들의 정치사상 내면화를 꾀하고 있다. 가정교육 이외에 만3세까지 어린이는 탁아소에 맡겨지며, 부모가 없는 고아나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어린이들은 육아원이나 보육원에서 성장한다(김병로 1994, 34). 성장 과정 내내 줄곧 김일성유일사상을 학습 받아온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와서 겪게 되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그들이 북한에서 배워왔던 주체사상과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것은 모두 거짓이라는 허탈감이다(조용관 2004, 171).

어릴 적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북한 주민들은 일생 동안 중첩적인 학습망으로 반복적으로 김일성주체사상을 내면화하게 된다. 북한에서 실시하는 정치교육은 북한체제에 순응하는, 즉 ‘김일성이 의도한 대로 생각하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결국 북한에서 가르친 김일성 유일사상체계는 인간의 존엄을 토대로 의사 결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다원주의적 사상이 아니라 다양한 개성을 획일화하여 철저하게 김일성·김정일을 우상화·세습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조용관 2002, 147-166).

<표 1> 남한 정착기간별 집단정체성 집단 간 비교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체제충성성	집단-간	13.747	4	3.437	3.207	.013
	집단-내	298.956	279	1.072		
	합계	312.702	283			
체제신뢰성	집단-간	11.346	4	2.837	2.919	.022
	집단-내	271.095	279	.972		
	합계	282.441	283			

* p<.05

(2) 학력과 반비례 하는 체제 충성성

체제충성성은 2년대 졸업자(M=2.9476), 고등중학교 졸업자(M=3.0975)보다 인민학교 졸업자(M=3.706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사후 검증 결과도 같았다. 인민학교 졸업자의 체제우월성, 체제충성성, 체제우위성, 체제신뢰성이 고학력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력이 올라갈수록 집단정체성 요인이 하락하여 4년제 대학졸업자 집단의 체제우월성, 체제충성성, 체제우위성, 체제신뢰성 가장 낮았다. 학력과 충성성이 반비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북한이 집단주의 정체성 형성을 조기에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상급학교 진학율이 낮은 것은 고학력자들의 낮은 충성성을 보이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북한의 인민학교, 중학교 진학율은 100%에 달하지만 고등교육기관 진학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소학교, 중학교 진학율은 100%이며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율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10세 이상 인구 대부분은 문자해독이 가능하며 2008년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문맹자는 거의 없었다(『연합뉴스』 2011/03/22).³⁾

<표 2a> 학력별 체제충성성 집단 간 비교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13.896	5	2.779	2.586	.026
집단-내	298.806	278	1.075		
합계	312.702	283			

<표 2b> 집단 간 Turkey 검증

	고등중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인민학교 졸업	*	*

* p<.05

3) 북한의 재학 인구는 539만 명으로 5세 이상 인구의 24.1%를 차지했다. 이는 남한(2005년 기준)의 6세 이상 재학 인구의 비율(24.7%)과 비슷한 수준이다. 진학율은 유치원 취학 연령인 5세가 88%, 소학교(6-10세)와 중학교(11-16세) 진학율은 16세(93.9%)만 제외하면 연령별로 모두 100%였다.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17세부터는 진학율이 36.8%로 약화하고 22-23세에는 7.7%로 저점에 달했다.

(3) 연령과 비례하는 체제우월성

체제에 대한 우월성은 30대(M=3.4552)보다 60대(M=4.1224)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김일성 시대가 더 좋았다’에서 75.4%(214명)가 ‘그렇다’고 하였다. 김병로(1994, 78-104)의 논의에서도 ‘김일성에 대한 신뢰는 99%, 김정일에 대한 지지는 60%, 북한체제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서는 30-40%, 북한체제의 사회적 우월성은 70%, 민족주의에 대한 지지는 99% 정도로 평가’로 나타났다. 체제의 우월성이 높은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북한의 젊은이들에게 나타나는 황색바람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적인 여건이 나빠지면서 체제에 대한 우월성이 하락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 연령별 체제우월성 집단 간 비교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16.325	5	3.265	2.943	.013
집단-내	308.434	278	1.109		
합계	324.760	283			

* p<.05

(4) 남성보다 여성에게 높은 체제신뢰성

체제에 대한 신뢰성은 남성(M=3.2591)보다 여성(M=3.5438)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들의 삶과 의식의 변화는 이전까지 유지되어 오던 가부장제의 와해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해도 북한 여성의 의식은 가부장적 요소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였으며, 여성들은 이전보다 조직과 사회생활에 대한 결속력과 귀속감이 희박해졌지만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들은 생계유지 활동에 몰두한 나머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지만, 집단주의 정신과 의식을 대체할 정도는 아니었다.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들의 삶과 의식의 변화는 이전까지 유지되어 오던 가부장제의 와해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해도 북한여성의 의식은 가부장적 요소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였으며, 여

성들은 이전보다 조직과 사회생활에 대한 결속력과 귀속감이 희박해졌지만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구수미 외 2004, 89-113).

<표 4a> 성별 체제신뢰성 집단 비교

	제공합	df	평균 제공	F	유의확률
집단-간	6.846	2	3.423	3.490	.032
집단-내	275.595	281	.981		
합계	282.441	283			

<표 4b> 집단 간 Turkey 검증

	남
여	*

* p<.05

(5) 체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충성성

북한 주민의 충성성은 통일 이후 한반도 사회통합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북한의 집단주의 특성이다. 한반도의 미래는 북한 주민의 자발적인 충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북한 주민들이 통일 이후에도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유지할지 한반도 전체를 위한 충성으로 전환할지의 여부에 한반도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제충성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체제충성성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체제신뢰성을 회귀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체제에 대한 신뢰성은 충성성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43%로 나타났으며 본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두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파악한 결과 VIF는 1로 나타나 변수 간에 과도한 상관으로 인해 나타나는 추정 오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집단정체성의 특징은 주민의 체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체제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낸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내면화는 북한의 조기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 북한 어린이들은 탁아소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김일성 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고맙습니다”라는 말이며, 그의 초상화 앞에 절하는 것이다. 유치원에서 제공되는 모든 물품은 수령과 당이

배우는 것으로 교육하고 식사나 간식시간에는 김일성에게 감사하다고 복창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하여 인간생존에 필수적인 의식주가 김일성에 대한 고마움과 충성심을 자연스럽게 유발시킨다(김병로 1994, 34). 충성심은 모델학습을 통해서도 형성되고 있다. 현실에서 모델이 될 만한 사례를 찾아 이른바 ‘숨은 영웅’들로 그려낸다. 그 대표적인 예가 60년대 초의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와 70년대의 『피바다』, 『꽃 파는 처녀』 등에 나오는 주인공 따라 배우기이다(이종석 2000, 228-230).

<표 5> 회귀모형의 계수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통계량 변화량				
					R 제곱 변화량	F 변화량	df1	df2	유의확률 F 변화량
1	.657	.432	.430	.79380	.432	214.259	1	282	.000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모형	135.009	1	135.009	214.259	.000
	잔차	177.694	282	.630		
	합계	312.702	283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	VIF	
1	(상수)	.759	.169		4.480	.000		
	체제신뢰성	.691	.047	.657	14.638	.000	1.000	1.000

IV. 한반도 사회통합정체성의 제시

1. 한반도 사회통합정체성 제시의 필요성

사회정체성은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마련이다. 개인이 속한 사회는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지지하는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개인의 사회정체감은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상당 부분 반

영한다(정태연 2000, 268-284).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따르면, 개인의 자아정체성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에 근거해서 형성되는 개인정체성(personal identity)과 그가 속한 사회나 집단에 근거해서 생기는 사회정체성(social identity)으로 구성되며 사회적 상황에서는 사회정체성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Tajfel 1982). 파슨스에게 있어 가치 지향은 통합의 중심 명제이며, 공통가치, 공통문화의 전승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성원들이 모두 받아들이는 공통규범에서 사회통합의 기저를 찾고 있다. 또한 기든스는 사회통합의 개념구조를 사회적 통합과 체제통합으로 양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통합이란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 및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이 상대적 자율성과 의존의 관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회통합에 있어서 사회적 행위자들의 다양성과 평등성 및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체제통합이란 거시적 차원에서 체제의 지배 정당성이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인정되고 수용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사회통합에 있어서 민주주의 원칙을 말한다(전숙자 1997, 83).

독일 통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그것은 ‘구조의 확대가 내적 통일을 즉각 수반하지 않는다’는 하이너 플레만의 경고이다(『조선일보』 2000/04/29). 슈미트는 독일 통일 과정의 ‘7대 과오’를 지적하며 “통일에 대한 환상이 깨지자 동독은 물론 서독에서도 국민들은 깊은 실망에 빠졌다. 많은 동독인들은 자긍심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서독의 복잡한 법규와 절차가 하루밤 사이에 들어와 동독 주민에게 강요되자 많은 이들은 힘에 부쳤고 어찌할 바 모를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그들 자신이 식민지화되었으며 외지인에게 지배당한다고 느끼고 있다”(슈미트 2007, 186). 이러한 상황은 1975년 통일된 베트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북부와 남부의 베트남인들은 상대방을 ‘부패하고’, ‘천박한’ 인간들과 ‘고루하고 어리석은’ 인간들로 서로 비하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 베트남 주민들 간의 사회통합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개혁과 개방정책 과정에서 북부와 남부의 사회적 이질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전상인 1994, 137-157). 동독 출신들에게서 나타난 사회정체감의 혼란은 심리적 갈등과 자살 수준까지 이르는 심각한 정체감 위기를 겪게 했다(강수택 1998, 8-9).

분단장벽이 깊이 내면화되어 있는 한반도 현실에서 통일 문제를 단순히

남북한 2개의 국가체제가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시각은 통일이 특히 북한지역 주민들에게 가져다 줄 사회적 적응 압력과 갈등을 제대로 볼 수 없다(전태국 2000, 16).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은 환경변화에 따른 가치 혼란과 자아정체성, 동기, 태도, 갈등, 정서 불안 등의 심리적 적응 문제를 경험하고 자본주의적 상업 문화에 대한 탐닉 등으로 범죄와 일탈행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기대 수준과 현실간의 괴리, 남한 주민들과의 현격한 차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차재호 2001, 11-12). 남북한 주민의 집단갈등은 양쪽 주민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다. 남한의 지역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채 통일이 될 경우 북한의 지역갈등, 통일 후 북한에서의 구체제의 기득권 집단과 피해자 집단 간의 갈등, 통일 후 새로이 성공한 집단과 실패한 집단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남북한 간의 지역갈등이 증첩됨으로써 사회균열과 이질성이 심화될 수 있다(박영호 1994, 35).

한반도는 통일을 앞두고 있다. 한반도의 미래세대는 남북한이 하나가 된 사회에서 살아갈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은 이데올로기의 변화로 인한 개인의 자아정체감(identity) 혼동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체제의 통합보다 남북한 주민들의 조화로운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통일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의 심화가 될 것이다. 파슨즈(T. Parsons)와 기든스(A. Giddens)는 사회통합의 전제로 공통의 가치 지향과 자발적이고 평등한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을 제시하고 있다(전숙자 1997, 79). 파슨즈는 사회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체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한반도 통일 이후 조화로운 미래세대를 열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사회통합의 전제로 공통의 가치 지향과 자발적이고 평등한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파슨즈는 공통의 가치 지향을, 기든스는 자발적이고 다양한 집단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때 상이한 사회문화체제를 가지고 있는 남북한에 합의를 제공한다. 이질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편견이 없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상대방의 장점을 서로 수용할 수 있다면 가장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통합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남북한 사회가 추구하는 인간상에 대한 합의와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은 특정 사회체제

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수단적 기능도 함께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 대하여 갖는 관심과 기대이며, 또한 한 사회가 추구하는 문화체제의 지향이념을 표현하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숙자 1997, 79).

미드(G. H. Mead)와 고프만(Goffman) 등에 의하면 모든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산물임을 강조한다(박종일·김은정 2008, 185-188). 구성주의는 ‘집단정체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집단에 속한 개인이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유사한 조건에 놓인 다수의 행위자들과 동류의식을 공유하게 될 때 집단은 새롭게 탄생하고 그 고유의 특성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Rogers & Cooper 2000, 11). 통합이란 각기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독립되어 있는 단위들이나 구성성분들이 하나의 일관성이 있으면서 더 큰 구성요소로 만드는 것이다(손기웅 2007). 따라서 통합된 체제는 그 구성요소 간에 높은 상호 의존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구성요소들이 개별적으로 가질 수 없는 체제 특성을 지닌다.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은 이데올로기의 변화로 인한 개인의 자아 정체감 혼동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남북한의 경제적·사회적 차별과 차이로 인한 집단 간 갈등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적 일체성을 회복하여 비슷한 생활양식을 공유함으로써 공통의 가치나 상호 이해를 증가시켜야 한다. 또한 한 사회의 인간은 그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 사회에 요구되는 인간관이 사회통합의 요소인 공동 가치나 문화적 특성에 합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규범을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하여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이다(프란케나 1987, 121). 따라서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한반도에 미래를 위한 사회통합정체성 모형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2. 한반도 사회통합정체성 모형

남한은 세계화 과정의 심화 속에서 단일문화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현상은 통일 이후 국내외적으로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 후 이미 오랜 장마당의 경험을 쌓은 북한 주민들은 시장경제를 의연하게 받아들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교육과 경험을 통해 쌓은 가치체계가 하루아침에 기능을 상실하게 될 때 그들은 정신적으로 큰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제도적·법률적 규범을 제시하였던 유일사상체계가 폐기된다면 이로 인해 정체성의 상실을 경험할 것이다.

정치·제도적인 통일 너머의 내면적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북한을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주제와 만나게 된다. 왜냐하면 북한이 함축하는 의미는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정치체제로 규정하고 있어서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사상의 측면에서, 그리고 주체사상을 수령론과 인간중심 철학의 두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측면에서는 수령론을 제외한 인간중심 철학과 사회주의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확장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김병로 2015, 13-37). 그래야만 그러한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통합으로서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이 의사소통적 상호 이해를 통해 ‘내적 통일’을 성취한다. ‘내적 통일’이란 국가 질서의 가치 기초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의미한다. 여기서 공속감을 강화시키는 구속력 있는 공통의 가치와 규범은 남한 사회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통합은 북한 주민들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것을 말한다(전태국 2000, 120). 그러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반도 미래세대가 긍정적인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이 한반도 사회통합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성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이타적인 욕구보다는 이기적인 욕구에 의해 더 잘 동기화된다. 예를 들면, 인간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보다 없는 경우에 타인을 위한 친사회적인 행동을 덜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공동체의 자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나은영·민경환 1998, 75-93). 자본주의에 개인 지향적이라면 사회주의는

타인 지향적이다. 또한 남한이 서양의 가치체계를 여과 없이 수용한 반면 북한은 동양의 집단적 가치체계인 사회적 규범의 준수와 절제와 협동을 강조한다. 북한 집단정체성의 주요한 특성인 ‘충성성’과 ‘신뢰성’이 미래세대의 한반도에 필요한 이유이다. 북한의 ‘충성성’과 ‘신뢰성’이 융합될 때 남북 통합의 새로운 내적 성장 동력이 완성될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은 이질성 극복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서독과 남북베트남의 통일은 이질적인 것을 모두 배척하고 단일한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은 통합을 이룰 수 없는 방법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미래세대의 사회통합정체성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제도의 체제 위에 북한의 자발적으로 내면화된 충성성과 신뢰성이 융합되어야 한다.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의 ‘자발적 성격’은 ‘충성성’과 ‘신뢰성’이다. ‘충성성’과 ‘신뢰성’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성립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형성되었으나 경제난 이후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규범적 성격’인 ‘체제우위성’과 ‘체제우월성’은 강제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난 이후에도 체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김일성 유일사상체계의 집단정체성 특징이다(이현주 2014). 통일 이후 북한 주민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충성성’과 ‘신뢰성’을 한반도 전체를 위한 ‘충성성’과 ‘신뢰성’으로 전환할 수 있을 때 북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한반도의 사회통합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한반도 사회통합정체성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한반도 사회통합정체성 모형



V. 결론 및 시사점

북한의 10대 원칙은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상위에서 작동하면서 김정은의 유일 독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통치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다. 북한의 유일사상체계는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당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그 후 후계체제를 강화하고 유일 독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통치규범으로 개정되었다. 북한은 김일성 유일사상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정체성의 형성 결과 대내외적인 시련을 극복하고 3대 세습을 이루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푸코는 ‘특정지식형성’, ‘권력체계’,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관계방식’에 의해 집단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북한의 집단정체성은 김일성 유일사상체계의 ‘특정지식형성’, ‘권력체계’,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관계방식’에 의해 형성되는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이라 정의할 수 있다.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의 성격은 ‘규범적(또는 강제적) 성격’과 ‘자발적 성격’으로 나타난다. 북한이 탈주민 284명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북한의 집단정체성은 북한 주민들에게 내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체제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충성성’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과 북한은 분단의 이데올로기가 형성한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해소해야 한다.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의 서로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편견은 실제 생활세계에서 남북한 주민 사이에 접촉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 중 다양한 갈등과 차별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를 극복하고 심리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편견에 대한 이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편견에 대한 성찰과 편견과 차별에 대해 저항하려는 노력으로 이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편견은 사회통합을 막는 가장 큰 심리적 장애물이 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시장경제를 의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교육과 경험을 통해 쌓은 가치체계가 하루아침에 기능을 상실하게 될 때 그들은 정신적으로 큰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제도적·법률적 규범을 제시하였던 유일사상체계가 폐기된다면 이로 인해 정체성의 상실을 경험할 것이다. 정치·제도적인 통일 너머의 내면적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령론을

제외한 인간중심 철학과 사회주의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확장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김병로 2015). 그래야만 그러한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통의 가치와 규범은 남한 사회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통합은 북한 주민들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것을 말한다(전태국 2000, 120). 남북한의 통일이 어떠한 통일이 되느냐는 이질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는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질적인 것을 모두 배척하고 단일한 것으로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사회통합을 이룰 수 없다.

한반도 미래세대의 사회통합정체성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도의 체제 위에 북한의 자발적으로 내면화된 충성성과 신뢰성이 융합되어야 한다.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의 ‘자발적 성격’은 ‘충성성’과 ‘신뢰성’이다. ‘충성성’과 ‘신뢰성’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성립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형성되었으나 경제난 이후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규범적 성격’인 ‘체제우위성’과 ‘체제우월성’은 강제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난 이후에도 체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김일성 유일사상체계의 집단정체성 특징이다(이현주 2014). 통일 이후 북한 주민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충성성’과 ‘신뢰성’을 한반도 전체를 위한 ‘충성성’과 ‘신뢰성’으로 전환할 수 있을 때 북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한반도의 사회통합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남한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 북한의 충성성과 신뢰성이 융합될 때 남북통합의 새로운 내적 성장동력이 완성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남한과 북한의 장점을 최대한 공유한 긍정적인 미래세대 사회통합정체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 시대는 한반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준비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강수택 (1998). “통독 후 동독지역 시민의 실업경험 및 노동관의 변화.” 『한국사회학회 전기 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한국사회학회.
- 강원택 (2007).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국가정체성과 한국 민주주의』. 동아시아연구원, pp. 15-38.
- 구수미·이미경 (2004). “1990년대 북한 여성의 삶과 의식.” 『변화하는 북한, 변화하지 않는 북한: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북한연구학회.
- 김국현 (2003).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통합을 위한 반편견교육 방안.” 『통일정책연구』. 제12권. 제2호, pp. 141-183.
- 김병로 (1994).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 민족통일연구원.
- _____ (2000). 『북한 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통일연구원.
- _____ (2015). “한국 사회의 이념갈등-평화적 공존의 길.” 『평화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III-한국사회와 평화』. 한반도평화연구원, pp. 13-37.
- 길은배 (2001).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과 NGO.” 『한국청소년연구』. 제12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 131-156.
- 김성경 (2015). “북한 청년의 세대적 ‘마음’과 문화적 실천.” 『통일연구』. 제19권. 제1호, pp. 5-6.
- 김하영 (2006). “북한 체제의 초기 집단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9권. 제1호, pp. 23-51.
- 김혜숙 (1999). “집단 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3권. 제1호, pp. 1-33.
- 나은영·민경환 (1998). “한국 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 조사 자료 재해석.” 『사회문제』. 제4권. 제1호, pp. 75-93.
- 류경남·최수정 (2006). 『가족상담심리용어사전』. 학지사.
- 민성길 (1998). “통일 이후 예상되는 북한 주민의 문화 충격 및 적응 문제.” 『통일 이후』. 제1권, pp. 69-106.
- 민성길·전우택 (1995). “사람의 통일: 정신의학적 접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원 심포지엄 발표 논문집』.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박영호 (1994). 『통일 이후 국민통합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 박재환 (1999). 『북한 유치원 교육론』. 형설출판사.

- 박종일·김은정 (2008). “‘집단정체성(group identity)’ 연구에서 ‘근원주의(essentialism)’와 ‘구성주의(constructivism)’의 검토: ‘민족’과 ‘연령집단’을 중심으로.” 『사회와 이론』, 제13권, pp. 309-323.
- 배규한 (2000). “남북한 사회통합의 과제와 전망.”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논집』, 11권, 1호, pp. 364-368.
-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 체제성립사 1945-1961』. 선인.
- 손기웅 (2007).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통일연구원.
- 오경섭 (2013). “10대 원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정치적 의미.” 『정세와 정책』, 제9권, pp. 12-14.
- 윤철기 (2014). “독일 ‘내적 통합’이 남북한 ‘마음의 통합’에 주는 교훈.” 『현대북한연구』, 제17권, 제2호, pp. 9-43.
- 이승목 (2006). “북한 집단주의 형성 및 변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종석 (2000).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 이현주 (2011a). “북한의 집단주의 특성요인과 심리적 분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1b). “북한 집단주의 정치사회화의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제2호, pp. 291-325.
- _____ (2012).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 충성도의 유지와 변화에 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제2호, pp. 135-171.
- _____ (2013). “북한 주민의 정치적 분리와 불안.”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제1호, pp. 147-177.
- _____ (2015a).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집단정체성에 대한 조사 연구.”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 자료집』. 북한연구학회, 2015.
- _____ (2015b). “탈북청소년과 미래세대의 통합.” 『제11회 DMZ 국제평화심포지엄자료집』. DMZ학술원.
- 전상인 (1994). “베트남에서의 시민사회 성장: 계급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민족과 문화』, 제2권, pp. 137-157.
- 전성우 (1997). “통일독일의 사회통합.”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민족통일연구원.
- 전숙자 (1997). “북한교육에 나타난 인간관: 사회통합의 관점.”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통일연구원, pp. 77-127.
- 전우택 (1997a). “난민들의 정신건강과 생활 적응에 대한 고찰 및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전망과 대책.” 『신경정신의학』, 제36권, 제1호, pp. 1-3.

- _____ (1997b).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 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제1권. 제2호, pp. 106-167.
- _____ (2000). “집단기억 현상을 통하여 본 북한 사회 이해.” 『사회정신의학』. 제5권. 제2호, pp. 179-196.
- 전우택·민성길 (1996). “탈북자의 심리와 적응상의 문제.” 이영선·전우택 편. 『탈북자의 삶, 문제와 대책』. 도서출판오름, pp. 35-38.
- 전태국 (2000). “사회통합의 전망과 과제.”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심리학회.
- 정태연 (2000). “남북통합의 사회심리학: 사회정체감과 집단 간 갈등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12권. 제1호, pp. 268-284.
- 조용관 (2002). “북한체제 특이성의 역사문화적 가능조건에 관한 연구: 이데올로기 교조화와 이상화, 세습화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6권. 제2호, pp. 147-168.
- _____ (2004). “북한 정치교육의 내면화가 탈북자 남한 사회적응에 미친 영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5집. 2호, pp. 155-184.
- 조정아 외 (2010).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통일연구원.
- 조한범. (2004).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성격 연구: 비교사회주의론적 접근』. 통일연구원.
- 조한혜정·이우영 (2000). 『탈분단시대를 열며: 남과 북, 문화공존을 위한 모색』. 삼인.
- 차재호 (2001). “통일한국과 심리적 화합.” 『심리과학』. 제10권. 제1호, pp. 1-17.
- 최순중 (2014). “통일한반도 시각에서 바라본 사회통합의 의미: 독일 통일 사례를 중심으로.” 『남북문화예술연구』. 제15권, pp. 283-310.
- 콜린 고든 (1991). 『권력과 지식』. 홍성민 역. 나남출판.
- 한성열 (2000). “북한의 문화적 특성과 남북한의 심리적 통일.” 『남북한의 심리적 통합』. 한국심리학회, pp. 131-153.
- 헬무트 슈미트 (2007). 『독일 통일의 노정에서』. 오승우 역. 시와진실.
- 현성일 (1997). “북한 사회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체계.” 『북한조사연구』. 제1권. 제1호, p. 1-47.
- Gordon, W. Allport (1993). 『편견의 심리』. 이원영 역. 성원사.
- Hall, Stuart (1996).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 임영호 역. 한나래.
- W. 프란케나 (1987). 『교육철학』. 이정빈·신현태 역. 이문출판사.
- Brubaker, Rogers and Frederick Cooper (2000). “Beyond Identity.” *Theory and Society*. Vol. 29. No. 1, pp. 1-47.

- Cerulo, Karen A. (1997). "Identity Construction: New Issues, New Direc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3, pp. 385-409.
- Habermas, J. (1987).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2. London: Polity Press.
- Henri, Tajfel (1982).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ckwood, D. (1964). "Social Integration and System integration." G. K. Zollschan and W. Hirsch (eds). *Explorations in Social Change*. London: Routledge.
- Melinda, Jones (2002). *Social Psychology of Prejudice*. New Jersey: Pearson Education.
- Placencia, Nathan (2010). "Am I Who I Say I Am? Social Identities and Identification." *Social Theory and Practice*. Vol. 36. No. 4, pp. 643-660.
- Smith, A. D. (1992). "National Identity and the Idea of European Unity." *International Affairs*. Vol. 168. No. 1, pp. 1-23.
- Stolorow, R. D., B. Brandschaft and G. E. Atwood (1987). *Psychoanalytic Treatment: An Intersubjective Approach* Hillsdale, N.J.: Analytic Press.
- Walter, G. Stephan (1999). *Reducing prejudice and stereotyping in schools*.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2. 기타

- "구조의 확대가 내적 통일을 즉각 수반하지 않는다." 『조선일보』. 2000년 4월 29일.
- "北, 핵개발 정당화 위해 자기 정체성과 외부 위협 활용했다." 『아세아경제』. 2014년 10월 26일.
- "북한의 상급학교 진학률." 『연합뉴스』. 2011년 3월 22일.

| 논문투고일 : 2016년 05월 20일 |

| 논문심사일 : 2016년 05월 27일 |

| 게재확정일 : 2016년 06월 13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3 No. 2 (2016)

Collective Identity of North Korea and Social Integration Identity of Future Generations in Korean Peninsular

Lee, HyunJoo

(Center for North Korean Studies, ARI)

Korean peninsular is in the time to prepare for the social integration of its future generations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erritory. The fact is South and North Korean societies lack in their objective understanding of each other, enclosed with prejudices formed since the division. For the purpose, various studies and discussion related to the integration of values in the future of the peninsular should be preceded based on unbiased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collective identity.

This study considers the collective identity of North Korea as Kimilsung monolithic ideology which has characteristics of voluntary system(loyalty, reliability) and compulsory system(supremacy, predominance) and explains it has resulted from 'related knowledge formation', 'system of power', 'relationship between ego and others' which Michel Foucault suggests as three formation factors of collective identity.

The result of our survey of 284 North Korean refugees shows that the collective identity of Kimilsung monolithic ideological system is internalized in North Korean inhabitants and forms 'loyalty' supported by 'reliability'.

The Korean society in the unified peninsular should accommodate the strengths of South and North Korea. This study suggests a desirable identity model for social integration in the unified territory which can

combine freedom and democracy of South and loyalty and reliability of North.

- Key words: North Korea, Collective Identity, Korean Peninsular, Future Generations, Social Integration Identity